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4일 금요일 (음 6월 13일)

제18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으랏차차” 전북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3일 오후 어느 아이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정동영 전대출마 명분 힘 실린다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출마 따라 당내 구도 변화에 '주목'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전대표, 천정배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전대출마인 정동영 의원이 일찍이 당권에 도전함에 따라 당내 구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 돌파에는 방향성과 속도감이 중요하다. ‘제2의 몽골 기병전’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겠다”며 “국민의당 지지자와 당원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자부심과 꿈을 찾아드리고 싶다”며 전당대회를 선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을 위기에서 구해보겠다. 위기에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당 존재의 이유는 개혁의 경쟁자여야 한다는 데서 찾아야 하고 개혁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 국민의당의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국민주권 실현 전제로서 당원 주권을 확실하게 구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민주당과 개혁의 경쟁자로 나서야 할

▶ 안철수 출마 선언에 당내선 반발
문준용 취업 특혜 제보 조작 도덕적 책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당내 의원 12명 '반대'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당원 주권주의’ 조항을 당헌에 명시할 것”이라며 “당헌 1조 2항을 신설해 국민의당 당원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당원 주권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남 문준용씨 취업 특혜 제보조작사건과 관련해 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안 전대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던 것이 불과 보

▶ 호남 민심은?
천 의원도 대선 패배에 책임 정 의원이 대안 가능성 커 “현재의 경쟁구도 뒤바뀔 것”

를 전 일이다. 국민의당내에서도 안 전 대표가 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의원 12명이 성명을 내고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반대한다”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도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희생은 지도자의 숙명”이라며 “안 전 대표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 불과 보름 전이다. 국민의당이 최근 국민들 여론을 살펴 불매 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가운데 어떻게 당을 탈바꿈시켜나갈지 이번 전대에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판도는 바뀔 것으로 점쳐진다. 한때는 호남민심이 국민의당 편에서 지지해줬지만 호남의 민심이 등 돌린 지는 오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동영 의원이 명분쟁가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대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 전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조작 사건과 무관치 않으며, 천정배 의원도 대선패배 책임이 일정 부분 다르기 때문이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피해자 형사보상금 10% 기부

박준영 변호사 “진범 잡는데 도움 준 황상만 전 군산경찰 형사반장에게”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33)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8억3,000여만원 중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만들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가운데 10%를 사법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달 24일 살인사건 재심에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에게 형사보상금액 8억3,000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황 반장의 열정적인 도움으로 최씨에 대한 무죄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동법 시행령은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

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15세이던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당시 42세던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의 경찰조사에 의하면 최씨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도중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유씨의 옥살에 분개해 유씨를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경찰에 입수되는 등 의혹은 계속됐다. 이후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감압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진범 김모(36)씨를 체포, 법정에 세웠다. 김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며 항소한 상태다. /김민근 기자

이낙연 총리 “집값 확실히 안정시켜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집값은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교육과 집값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이날 회의에 ‘2021

학년도 수능개편시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중요시하는 시각과 교육현장의 안정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시각 등 여러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는 사드, 신고리 원전 5·6호기 문제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학교고, 행복한 교육은 우리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